

# 영광군 'RE100 산단 유치' 도전

### 전력량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 등 논의



지난 13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산단에서 쓰이는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단 유치 행렬에 영광도 합류했다.

영광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정섭 부군수 주재로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영광군 사업비 6600만원을 들여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용역을 맡겨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올리자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군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RE100 산단 조성에는 충남 당진시가 가장 먼저 뛰어 들었고 전북 새만금과 해남, 광양 등도 유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집적단지)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발전사업 이익공유 방안과 스마트그리드(차세대 전력망) 산업, 수소산업 기업 유치 방안, RE100 산업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연구 용역사는 RE100 산단 발굴 임지를 추천하고 에너지 정책환경 분석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획량을 설정한다.

또 에너지산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고, 지역주민 자금조달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해결 과제를 끌어낼 예정이다.

김학도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원장은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입지 조건이 훌륭하다"며 "발전 수익 공유 방안을 검토해 영광군만의 주민 참여 발전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태양광-해상풍력의 집적화 단지가 가능한 입지 발굴"이라며 "발전단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사업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 기자 노트

### 이래서 시의원에게 표를 던질 수 있을까?



장봉선 서부취재본부 차장

목포시가 2023년도 시민과의 대화를 해당 지역구 출신 도의원과 시의원, 시민과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했다.

시는 올 시정 추진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는 한편,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전한 제안과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자평했다.

목포시 구도심 연동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의 일이다.

목포시장은 그동안의 시정 활동 등을 설명했고, 지역구 도의원은 전남도의회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인사말로 지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듯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서면서 국비 예산반영만도 6800여억 원에 이르며, 백련근린공원 경관조성 10억 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만도 83억 원을 받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다.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의 땀겨울이 성과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연동은 구도심으로 고령의 어르신들이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부에 와 닿는 도의원의 인사말은 박수받을 만했다.

하지만 지역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접촉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 시의원은 지역민들의 고충보다는 24절기를 언급하는 '식상한 인사'로 대신했다.

지역의 고충이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은 없고, 그저 표를 의식한 그들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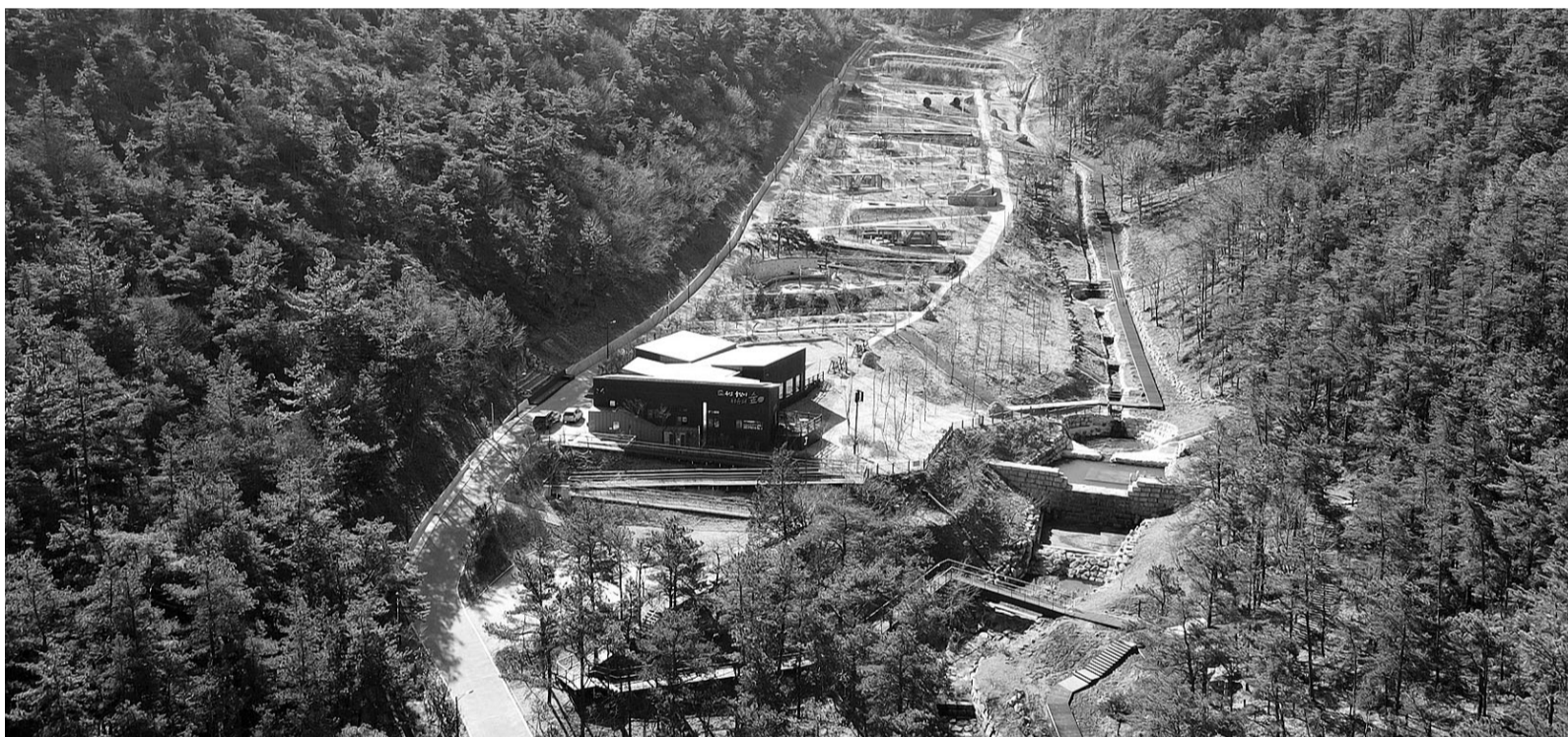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이 한 장소에서 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소통과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그만큼 지역민의 기대도 크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연동은 침체일로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예산 원독은 폐가가 속출해 고양이 집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LPG 가스는 도로를 침범해 안전사고 또한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지방의회를 도입한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은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들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아니면 돌을 던질 것인가. 판단은 시민의 몫이다.

/jbs@kwangju.co.kr

## 무안 '물맛이 치유의 숲길' 걸으며 힐링



숲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무안 '물맛이 치유의 숲'이 17일 개장한다. 물맛이 치유의 숲 전경. <무안군 제공>

### 125ha 부지 80억 투입 6년간 숲길·정원 등 조성...내일 개장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물맛이 치유의 숲'이 문을 연다.

무안군은 오는 17일 무안을 '물맛이 치유의 숲'에서 개장식과 함께 제78회 식목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안 물맛이 치유의 숲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5ha 부지에 국비를 포함해 80억 원을 투입, 산림치유센터와 다양한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치유의 숲 내에 건립된 산림치유센터에는 건강측정실, 심신 이완실, 다목적 치유실 등이 마련돼

탐방객들의 휴식과 건강 회복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치유의 숲에서는 '숲 in 공감', '숲 in 만남', '숲 in 여유' 등 7종의 나이별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 숲길에는 보행 약자들의 산책을 돕는 데크길, 일반 숲길 등 다양한 코스와 함께 명상 쉼터, 전망대 등이 조성돼 방문객들이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장식과 함께 진행되는 식목일 행사에서는 치유의 숲 주변에 진달래 432그루를 식재하고, 참여자에게는 비파나무 650그루, 뽕나무 300그루

등을 나누어 준다.

군은 올해에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 나눔길'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대곡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2km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까지 치유의 숲 주변에 숲속 야영장을 추가 조성해 물맛이 숲을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물맛이 치유의 숲이 방문객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서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무안 오룡공원서 청년셀러 베틀시장

### 25일 플라마켓 개최...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

무안군이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로읍 오룡공원에서 청년셀러 플라마켓 '마켓 올래(來)'를 개최한다.

무안군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지금까지 판매자 100여 팀을 모집했다.

주민들은 오룡공원 놀이터에서부터 참나무숲 공원 입구까지 400m의 산책로를 걸으며 음식, 생활, 패션, 미용, 체험 부스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무안로컬푸드사회적협동조합과 무안플랫폼사업단에서도 참여해 군 향토 농특산물로 지역 먹거리 존을 운영한다.

또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비눗방울 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무안군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야외 판매행사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플라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수정 무안군 미래성장과장은 "4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무안 오룡·남악신도시의 주민들이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일상 속의 체험·소통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진도 유해야생동물 퇴치기 설치비 지원

### 농가당 500만원 한도 피해액 최대 80% 농작물 피해보상도

진도군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과 피해보상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절망, 전기 울타리, 경음퇴치기 등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농가당 500만원 한도로 피해 산정액 최대 80%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멧돼지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고구마, 벼, 배추 등 65농가에 6500만원과 주민 1명에게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말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3

명을 위촉, 피해 신고와 포획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멧돼지 등을 포획하는 상시 운영 태세도 갖췄다.

진도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 최소화 위해 지난해 멧돼지 256마리, 고라니 224마리, 조류 200마리 등을 포획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며 "야생동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오감 '해양 치유'

###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 미디어 아트 활용 명상 등 인기

완도 해양문화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치유 미디어 아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해양문화치유센터가 '치유'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해양치유는 해양성 기후, 해수, 해조류, 갯벌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질병 예방, 재활 치료 등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해양문화치유센터는 인체 오감을 주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등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에 건립했다.

치유센터는 향기 치유 공간인 후각동, 해조류를 이용한 요리 공간인 미각동, 도자기를 빚는 촉각동,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시청각동 등 4개 동으로 구성됐다.



시청각동에서는 미디어 아트<사진>가 10분 정도 상영된다. 명상을 알리는 싱잉 볼 소리를 시작으로 신지 명사십리 밤바다, 완도 바닷속 풍경을 테마로 하는 CG와 완도 구계동 일몰, 정산 신봉 해변, 상왕산, 금당 병풍바위 등 완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았다.

단순한 영상 관람 공간이 아니라 '치유'를 주제로 명상을 하고 시각과 청각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양문화치유센터 시청각동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미디어 아트 인기에 힘입어 해양문화치유센터의 시청각동을 치유의 랜드마크로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담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현대삼호중 전 사원 교육으로 새 도약

###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10월까지 39차례 진행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전 사원 조직활성화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한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오는 10월까지 신안군 자은도 씨원리조트에서 총 39차수에 걸쳐 전체 사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조직활성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됨에 따라 조직 구성원 상호간 신뢰 강화 및 소통과 화합의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수당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하나되어 펼쳐지는 하모니의 감동과 파워, 힐링요가 및 명상, 행복한 소통 등 다양한 팀별 활동으로 구

성됐다.

1일차 저녁에는 임원으로 구성된 격려방문단이 직접 교육장을 방문해 교육 대상 사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며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현대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은 "CEO 격려 영상"을 통해 "그동안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간에 서로 감사하고 배려하며 즐거움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